

# 濟州島 方言의 語尾 活用에 대해서

金 承 泰

차 례

머 리 말

## I. 序

### II. 語尾一覽表와 그 考察

- A) 肯定 叙述形 語尾
- B) 叙述 質問 同形 語尾
- C) 命令 勸誘形 語尾
- D) 疑問形 語尾
- E) 連結 語尾 및 接尾辭

머 리 말

本資料는 필자의 故鄉인 北濟州郡 舊左面 終達里와 本學會 年間 事業의 一環으로 가졌던 하계방학의 現地調査 對象 地域인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를 中心으로 蒐集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終達里에서 蒐集한 資料에 對해서는 昨年 五月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主權 研究 發表會에서 필자가 直接 發表한 바 있다.

## I. 序

濟州 方言은 「·」音의 維持로 學界의 脚光을 받게 되고 오늘날에 와서 調査 研究의 緊要性은 더 말할 것까지도 없다.

本 資料는 方言의 형태부분에 注力하여 길거리에서 버스간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對話를 나눌 때마다 關心을 두고 蒐集한 것이며 이를 모아 形態論的인 考察을 試圖했다. 그리고 本島 特有的 語尾만을 다루었고 이를 필자 나름대로 分類해 肯定 叙述形 語尾, 叙述 質問 同形 語尾, 疑問形 語尾, 命令 勸誘形 語尾, 連結 語尾 및 接尾辭, 順으로 배열하였고 分類 方法에서는 語尾와 地域의 表記 語尾 類似性과 活用に 힘을 기울였다.

또한 標準語 記入은 古今이러니와 時制도 곁들였다.

그리고 필자가 調査한 對象地域은 旌義 地域<城山, 表善, 南元>을 除外한 濟州島 全域이며 여기서 語尾 100여개를 蒐集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필자의 獨斷이겠지만 旌義 地域에서 問題의 語彙는 없을 줄 믿는다.

結論的으로 말해 形態論에서 陸地語와 距離가 먼 것은 用言의 活用이라 斷言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語尾 活用に 考察해 보기로 한다.

## Ⅱ 語尾 一覽表와 그 考察

### 1) 肯定 叙述形 語尾

번호	어	미	사	용	례	표	준	어
1	— (口) 찌		가찌. 잡찌. 먹어찌. 먹엄찌			~고 있다.		
	— (人) 찌		갓찌. 먹엇찌.			~(았, 었)다		
2	—브릿찌		가브릿찌. 먹어브릿찌. <전역>			~버렸다.		
	—뻬찌		가뻬찌. 먹어뻬찌. <구좌>					
3	— (口) 수다		감수다. 먹엄수다. <현재>			~(으, 이)버니다		
	— (人) 수다		갓수다. 먹엇수다. <과거>					
	—갓수다		가갓수다. 먹갓수다. <미래>			~갓읍니다		
4	—(이, 으)우다		깊으우다. (깊읍니다) <형>			~(이, 으)버니다		

	갈거우다. (갈것입니다) (동)	
5 —쿠다	가쿠다. (가겠읍니다) (먹으쿠다) ~겠읍니다	
6 —키여	가키여. 먹으키여. <미래> ~겠다	
7 —싱계	가싱계. 먹어싱계 ~ (왔, 었)다	
8 —영계	시영계. 덕영계 { ~더라	
—영계	홍영계 { ~하다	
9 —정계	가정계 (갈 수 있었다. 可能을 나타냄) ~있었다	
—전계	가전계. 먹어전계	
—쟁계	먹어쟁계. (同上「ㅇ, ㄴ」에서 오는 意味差異)	
10 —큼계	먹으큼계. 가큼계 (말듯하다) ~르듯하다	
11 —풍계	가고풍계. 먹고풍계 (먹고싶다) ~싶다	
12 —(ㄴ)디	간디. 먹은디 { ~는데	
—신디	가신디. 먹어신디 { ~인데	
13 —카부다	가카부다. 먹으카부다 ~르까보다	
14 —걸랑	가걸랑. 먹걸랑 ~거든	
15 —배꼬	가배꼬. (가버렸네.) { (구과) 意味差異는	
—브러꼬	가브러꼬. 먹어브러꼬 { 없음 그러나 억양 에 의해 의 문형도 됨 (전역)	
16 —야켜	가야켜. 먹어야켜. (의지를 나타냄) ~야겠다	
17 —(ㄹ)로고	갈로고. 먹을로고 { ~겠소 ~겠다	
18 —난	가난. 먹으난. ~니까	
—부난	가부난. 먹어부난 ~버리니까	
—(아, 어)난	살아난. 먹어난 ~ (왔, 었)다	

—시 난	가시 난. 먹어시 난	~있으니 까
19 —네	가네. 먹으네 (標準語와 同)	~네
—부네	가부네. 먹어부네.	~버리네
—브릿네	가브릿네. 먹어브릿네. (전역)	
—뻬네	가뻬네. 먹어뻬네. (구좌)	
20 —곡	항곡, 가곡, 먹곡.	~고서
21 —곡말곡	항곡말곡. (하교말고, 強意)	
22 —서고	가서고. 먹어서고. (전역)	~있었다
	「—서」에—고, 가 첨가되서 強意를 나타냄	
23 —매	가매. 먹으매.	~르것이다
—불매	가불매. 먹어불매.	~버릴것이다
24 —(人)찌라	갓찌라. 먹엇찌라. (強意)	~쓰다
25 —기사	항기사 (하기야, 對話를 나눌 때 使用)	~기야
26 —그네	가그네. 와그네. (來)	~고서
—(아, 어)그네	먹어그네. 항어그네. (연결어미로도 쓰임)	~서
27 —꾸나	가꾸나. 먹어꾸나<과거>	~(았, 었)구나
—(암, 엄)꾸나	살암꾸나. 항엄꾸나<현진>	~있구나
28 (이, 으)니깐	가니깐. 먹으니깐 (과거에 의한 연결어미)	~니까
29 —(르) 거여	갈거여. 먹을거여.	~르것이다
30 —(ㄴ) 생이여	간생이여. 먹은생이여	~ㄴ모양이다
31 —스따야	갓따야. 먹엇따야 (強意)	~(았, 었)다
32 —(口) 네다	감네다. 흥네다<미래>	~뵈나다
33 —넝	죽넝 (연결어미로도 쓰임)	~는다고

34	—야주	가야주. 먹어야주	~야한다
35	—코	하코. 먹으코 (먹을까)	~르까
36	—시네	가시네. 먹어시네. <과거>	(아, 어) 있다
	—(口)시네	감시네. 먹엄시네. <미래>	
37	—테	하테. 가테. 못테 (言, 말하더라)	~더라
38	—시라	가서라. 먹어서라. <과거>	~쓰더라
39	—(암, 엄)서	감서. 암서. 먹엄서. <현재>	~고있어요
40	—시마	가시마. 먹어시마. (먹었겠다)	~있겠다

## 2) 叙述 疑問 同形 語尾

번호	어	미	사	용	례	표	준	어
1	—멘		하	멘?	가멘. (전역)	{	~는가?	
						}	~는다.	
2	—비연		어	디가비연?	먹어비연. (구좌)	{	~버렸는가?	
						}	~버렸다.	
3	—(르)거여		잘	거여?	먹을거여.	{	~르것인가?	
						}	~르것이다.	
4	—커라		가	커라?	먹으커라.	{	~겠는가?	
						}	~겠다.	
5	—젠		하	젠?	가젠.		同上	
6	—서		가	서?	와서 (來)	{	~쓰느냐?	
						}	~쓰다.	
7	—안		뭐	먹안?	살안.			
	—언		죽	언?	죽언.	{	~(왔, 왔)어?	
						}	~(왔, 왔)어.	
8	—(이)쥬		가	쥬 (칭유)	이진책이쥬. (긍정)	{	~자	
					이는 특이형으로 칭유, 긍정 훈형이다.	}	~이다	

3) 命令 勸誘形 語尾

번호	어 · 미	사 용 예	표 준 어
1	—불주	가불주. 먹어불주. (권유)	~드시다
2	—보카	가보카. 먹어보카. (권유)	~르까
3	—(보)심	허심. 먹어보심. 가보심. (권유)	~시요
4	—자	가자. 허자(標準語와 같은 特異形)	~자
	—(디)쥬	허쥬. 험쥬	~드시다
	—십주	허십주. 먹으십주.	~십시다
5	—주	가주. 먹주. (권유)	~자
		※ 놀암주, 저디감주 (~고 있다, 긍정)	
6	—(으)카	가카. 먹으카. (평칭, 권유)	~르까요
	—불카	가불카. 먹어불카. (중칭)	~버릴까
7	—게	가게. 먹게 (권유)	~자
		※ 억양에 의해 명령도 됨	~(아, 어)라
8	—자	가자. 먹자. (비칭, 권유)	同上
		※ 억양에 의해 명령도 됨	
9	—주게	가주게 / 먹주게 / (명령)	~(아, 어)라
	—(디)주게	갑주게. 먹읍주게. (권유)	~시다
10	—(口)시민	가시민. 감시민 (구좌)	~고있으면
	—(口)시문	가시문. 감시문. (전역)	
11	—(디)서	갑서. 먹읍서. 존칭	~십시오
		※ 명령과 권유 혼용	
	—릅서	가릅서. 먹어릅서. 극존칭	~버리십시오
12	—보저	가보저. 먹어보저. (명령)	~버려
13	—주기	가주기. 먹주기. (명령)	~(어)라
14	—시라	가시라. 먹어시라. (명령)	~있어라—

- (口)시라      감시라. 먹엄시라. (명령)
- 15 —(어, 아)도라      가도라. 먹어도라. (가벼운 명령) ~ (어, 아)주어라
- 16 —젠      가젠. 먹으젠. (가벼운 명령)      ~라고
- 17 —어      벌리일해어. (명령) 이젠 책이  
어 (긍정) 이거 책이여? (의문)      ~라
- 18 —영      일할영 읍서 (일하고 오십시오)      ~고서
- ※ 후라의 제 2 변형
- 19 —ㅆ센      먹읍센. 길읍센. 흠센. (명령)      ~십시오

#### 4) 疑問形 語尾

번호	어	미	사	용	례	표	준	어
1	—샤?		해샤?	먹어샤?				~쓰느냐?
	—(口)샤?		햐샤?	먹엄샤?	(전역)			
2	—사?		가사?	먹어사?				~고 있느냐?
	—(口)사?		감사?	먹엄사?	(구좌)			
3	—(ㄹ)차?		갈차?	먹을차?	(전역)			~겠느냐?
	—(ㄹ)타?		갔타?	먹을타?	(구좌)			~겠느냐?
4	—수까?		가수까?	먹어수까?				~쓰옵니까?
	—수깡		※ 수까?의 異形					
	—수파?							
	—수팡?							
	—수강?							
5	—시카?		가시카.	먹어시카?	(가벼운추측)	(왔, 었)는가?		
	—(口)시카?		감시카?	먹엄시카?				
6	—싱가?		가싱가?	먹어싱가?			同上	
7	—브런?		가브런?	먹어브런?				~버렸나?







- 17 -커건            가커건. 먹으커건.                            ~겠거든
- 18 -양                먹어신게 양. 가신게 양.
- 19 -예                먹어신게 예. 가신게 예.  
                          「양, 예」는 응답을 요구할 경우에  
                          쓰이는 접미사
- 20 -마썸              감서마썸. 먹어서마썸.                            ~옵니까?  
                          -마썸              감서마썸. 먹어서마썸                            ~옵니다.  
                                                     억양에 의해 의문도 됨                            ~는데요.
- 21 -이                먹언이. 잡안이. (강조 접미사)                    ~서
- 22 -(지)사            가지사. 먹지사. 살지사                            ~(기)야  
                          ※ 보조어간「지」를 빼면 의문이 됨
- 23 -ㄱ                먹교→먹꼭. 살교→살꼭 (강제 접미사)

### 1) 肯定 叙述形 語尾

#### 1 -ㅈ, -(口)ㅈ

어간 +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ㅈ} \\ \text{ㅈ}$

~ㅈ (지) (평칭)
~서 (증칭)
~수다 (존칭)

예) 감ㅈ      감서      감수다

#### 2 - (이, 으) 우다. -수다. 「-(이, 으)ㅂ니다」

- { (명) 저건 독이우다
- { (동) 난 깔겨우다                    (나는 깔 것입니다)
- { (형) 저 바당은 깊으우다 (저 바다는 깊습니다)
- { (동) 사람들 하영 갔수다.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 { (형) 그 사람 줌말로 곱수다.                    (그 사람 정말로 곱습니다)

「-(이, 으)우다」에서 「우다」는 존칭 서술형 어미다. 그리고 「~수다」  
는 겸양어미 「쇼이다」의 변형으로 되기도 하고

「갓수다」⇒가+ㅅ (과거시상) +우다 (존칭서술형 어미)로 분석 하기도 한다.

3. ~쿠다, ~키어, ~크(커)라.

어간 + { 키어 (～겠다) <평칭>  
쿠다 (～것읍니다) <존칭>

○. (동) 생이 잡으키어. (참새를 잡겠다)

(형) 이던 깊으키어. (이곳은 깊겠다)

○. (동) 생이 잡으쿠다. (참새를 잡것읍니다)

(형) 하늘이 붉으쿠다. (하늘이 붉것읍니다)

⇒ 잡으쿠다 (키어) — 잡 + 으(조음소) + 크(미래시상) + 우다 (존칭서술형 어미)

※ 「크(커)라」는 叙述 疑問 同形으로 抑揚의 差異에서 意味가 달라진다.

○. 집의 가크(커)라? / (집에 가겠는가?)

○. 집의 가크(커)라. → (집에 가겠다)

4. —ㄴ(으)게 「～는데, ～은데, ～는데」(평칭)

⇒ 영계, 엉계, 정계, etc.

例 (동) 사람들 하영 감성계. (사람들 많이 가고 있는데)

(형) 바닷물이 퍼렁계. (바다물이 푸르더라)

(명) 그거 간보난 책이랑(랑)계 (그것 가서 보니 책이더군)

이 項은 例에서 봐 알 수 있듯이 異形이 많고 「—ㄴ계」가 원형일 듯하며 이는 연결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 2) 叙述 疑問 同形 語尾

이는 抑揚에 의하여 肯定文이 되고 疑問文도 되어 語彙 活用に 있어 錯誤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 重要한 例를 살펴 보면—

1. —(으)멘 —(아, 어)비연 「—는다, ～는가?」

- 예 { ○. 어디 가멘? / (어디 가는가?)  
 ○. 생이 잡으멘. → (참새를잡는다.)  
 ○. 어디 가비연? / (어디 갔느냐?)  
 ○. 생이 잡아비연. → (참새를 잡아버렸다.)

이는 時相에서 오는 差異 「멘 (현재), 비연 (과거)」는 물론이려니와 「-멘」은 전역 「-비연」은 구좌임을 밝혀 둔다.

⇒ 잡 + 으(아, 어) (조음소) + 口 (현재시상) + 멘 (서술형 어미)

2. -젠 「~느냐? ~려고, ~고자」

- . 하젠? / (~하겠느냐?)  
 ○. 하젠 → 「~하려고, ~하고자.」

3. -나. 「~는다, ~는가?」

- . 무사 경 빨리 먹나? / (왜 그렇게 빨리 먹는가?)  
 ○. 저 사람은 빨리도 먹나. → (저 사람은 빨리도 먹는다.)  
 ⇒ 먹나 - 먹 + ㄴ (현재시상) + 아 (서술형)

4. -서 「쓰어, 쓰어?」

- . 일다 하여서? / (일다했는가?)  
 ○. 일다 하여서. → (일다했어)

5. -았, (언) 「-았(었)어, -았(었)어?」

- . 밥다먹언? / (밥다먹었어?)  
 ○. 밥다먹언. → (밥다먹었어.)  
 ⇒ 먹언 - 먹 + 어 + ㄴ (과거시상)

### 3) 命令 勸誘形 語尾

- 가) 어간 + { ○. 자 (~계) (평칭)  
 ○. 주 (~계) (중칭)  
 ○. 님주 (~계) (존칭)  
 ○. 십주 (극존칭)

예) ○. 빨리가자 (一계) (빨리가자, 표준어와 同)

- . 빨리 가주. (스게) (빨리 가자. )
- . 빨리 갑주. (게) (빨리 갑시다. )
- . 빨리 가십주. (게) (빨리 가십시오. )

- 나) 어간 + {
- |               |                    |
|---------------|--------------------|
| ○. (으)라 (게)   | 예) ○. 빨리가라(게) (평칭) |
| ○. -아, 어 (게)  | ○. 빨리가, (게) (중칭)   |
| ○. (으)십시오 (게) | ○. 빨리갑쇼 (게) (존칭)   |

위의 간단한 體系를 세워 살펴 봤지만 「-시」가 더미 活用에 뛰어 들어 敬語法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는 陸地語와 혼합형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한다.

그리고 問題의 「-게」는 「命令 勸誘」의 機能을 지녀 二重으로 쓰이고 있으니

- 即 ○. 가자 (去, 命令) + 게 (勸誘) = 가자게(命令의 強調)  
 ○. 가라 ( " ) + 게 ( " ) = 가라게 ( " )

- (이)여 「~(이)다」

- { (명) ○. 이젠 책이여. (이것은 책이다.)  
 { (동) ○. 난 집이 가키여 (나는 집에 가겠다.)

라 하면 肯定 叙述形이 되지만 單語에 따라서 音調를 높이면 命令 勸誘形이 된다.

- 即 ○. 빨리 일해여 / (명령)  
 ○. 이거 책이여? / (의문)

으로 되는 특수 어미이다.

#### 4) 疑問形 語尾

- 가) 어간 + {
- |   |   |   |   |                      |
|---|---|---|---|----------------------|
| { | 아 | } | + | ○. 쿠까?, 쿠파?, 꾸강? etc |
|   |   |   |   | ○. 님테까?              |
|   |   |   |   | ○. 브런?               |
|   |   |   |   | ○. 샤?                |
|   |   |   |   | ○. 우까? 우파? etc       |

나) 어간 +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end{array} \right\} + \text{ㄷ}$   $\left\{ \begin{array}{l} \text{○.싱게?} \\ \text{○.서?} \\ \text{○.디아?} \end{array} \right.$

다) 어간 +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end{array} \right\} + \text{ㄹ}$   $\left\{ \begin{array}{l} \text{○.티아?} \\ \text{○.꺼야?} \\ \text{○.래?} \\ \text{○.겻수까?} \end{array} \right.$

라) 어간 +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end{array} \right\} + \text{ㄱ}$ ?

疑問 終結 어미에서는 四部分으로 要略할 수 있겠다.

「가」形은 過去, 「나」形은 現在, 「다, 라」形은 未來形으로 區分지어 보면 質疑形에서는 수월하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 例를 圖表에서 보면,

	과	거	현	재	미	래
평칭	하여시냐?		하엿디아?		흐티아?	흐테?
중칭	하여서?		하엿서?		하젠?	
존칭	하여수까?		하엿수까?		하겻수까?	
극존칭	하십네까?				하시겻수까?	

※ 「-수까?」는 보조 어간에 따라 時相이 달라 짐.

### 5) 連結 語尾 및 接尾辭

1. ~카부덴 「ㄹ까브다. ~ㄹ까봐서」

이는 本島 方言의 特異形이며 「-덴」도 엿보인다.

○. 그거 살카부덴(덴) (그것 살까보다)

○. 고르카부덴(덴) (말을 할까봐서) 로 意志를 나타낸다.

2. -앙, -영, -안, -연.

時制 觀念에서 오는 異形態로 現在를 基點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기한다. 그 意味는 「~하다, ~하여」의 對應으로 使用하고 있다. 그 例를 보면,

○. 이디 왕 상 갑서 (여기 와서 사가시오)

○. 먹영 ○. 살양 ○. 강 (去)

等으로 「-양, -영」은 未來의 行動을 制約하고 있으며 반면 「-안, -언」은 過去의 行動을 나타내고 있다.

即

○. 그디 간 보난 (그곳에 가서 보니)

○. 먹언, ○. 죽언, ○. 간 (去)

이며 「-양, 영」과 「-안, -언」의 關係를 살펴 보면 전자가 후자로 移行하지 않는가 한다.

3, -민, -문. 「~면」

두 形態로 나눠 使用하는 理由는 方言의 特殊性으로 地域의 差異에서 오는 어미 活用으로 간주하고 싶다.

即

○. 어디 가민 이싱구? (어디 가면 있을까?)

○. 어디 가문 이싱구? ( 同 上 )

으로 「-민」은 「舊左」地域 「-문」은 全域에서 使用하고 있으며 標準語 「~면」에 해당하여 「어간 + (으)민(문)」으로

○. 먹으민 (문) ○. 고르민 (문) (言) ○. 어시민 (문) 등이 例를 들 수가 있다.

4, - (아, 어) 사. 「~아야, ~어야」

이는 抑揚에 의하여 疑問形이 되기도 하지만

○. 어간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end{array} \right\} + \text{사, 로서} \left\{ \begin{array}{l} \text{○. 살아사} \quad \text{○. 가사, etc} \\ \text{○. 먹어사} \\ \text{○. 해어사} \end{array} \right.$

로 쓰여 連結 語尾 역할을 하며 標準語 「~아야, ~어야」에 해당한다.

5, ~양, ~에

○. 잡아신게 양 ○. 먹어신게 양 ○. 먹어신게 예 ○. 잡아신게 예

이는 同類로서 接尾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응답을 요구할 때 재우쳐 묻는 말로 使用하고 있다.

6, -마씀, -마썸, -카마씀

이는 終結語尾 中稱에 連結되어 敬語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합니다 ~합니까?」로 앞에 「~양, ~에」의 形態와 大同小異하다.

即

○. 감서 마씀 (마썸) <갑니다> -현재

○. 가서 마씀 (마썸) <갔읍니다> -과거

○. 가커라 마씀 (마썸) <가겠읍니다> -미래

로 나뉘고 抑揚에 의하여 疑問文도 된다.

○. 감서 마씀? / (갑니까?)

○. 감서 마씀. → (갑니다. )

이며 이는 本島 方言의 特異한 形態이며 「-카마씀」에서 보면 「카-」는 意志 未來를 나타내 「-마씀」과 連結 「~까요」이 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語源은 分明치 않고 또한 「~마씀」과 「-마썸」의 使用도 明確히 區分 지을 수 없고 다만 話者의 主觀의 表現이다.

以上 필자 나름대로 蒐集되어진 어미들을 分析 考察 해 보았으나 배우는 過程이기 때문에 미흡한 줄 믿는다.

여기 소개한 어미 외에도 많은 어미가 있을 것인데 이는 本島 方言이 陸地語 보다 複雜한 데서 起因한 것이라 생각된다. <3년>